

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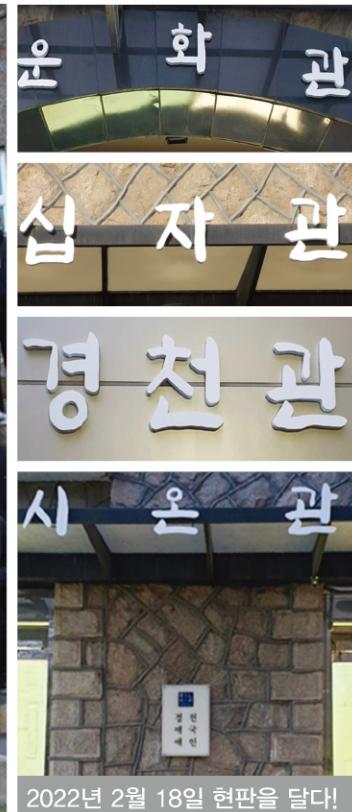
<http://www.hwanil.hs.kr>

입학기념호

· 발행인 : 박종관
· 발행처 : 환일고등학교
· 주 소 : 서울시 종구
· 화일길 47

2022년 3월 2일 수요일

환일 동산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2년 2월 18일 현판을 달다!

입학을 축하합니다.



김은미 이사장님

연록빛의 새순이 돋아나는 봄을 맞이하면서 환일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차가운 바람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오늘 입학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노란 개나리의 꽃잎과 아직도 새순을 감추고 있는 은행나무의 움트림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신입생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입학한 여러분들은 환일의 정신과 기개를 담고 그 이상을 실현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우리의 꿈을 쉽게 이룰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저앉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빙해와 소음 속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묵묵히 걸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우리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환일의 기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인생의 베풀목이 되며, 인생 항로의 안내자가 될 정신적 지표를 세워나가는 중·고등학교 시절의 정신적 양식을 익히고자

“환일호”에 승선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경천의 교훈을 실천하고 사랑을 익히며,
‘애국·애교’의 정신을 함양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을 ‘이끌고, 보듬고, 따듬어줄’
환일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승으로서, 부모와 같이, 또는 친구로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웃고 땀 흘릴 것입니다.

학교의 등굣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설립자의 정신’,
“걸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는 표어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땀이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 항로에서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며,
제 1인자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먼 훗날 환일의 이름을 드높일 환일인으로 성장하여 이 세상에
환일을 빛낼 것입니다. 최후에 웃는 최후의 승리자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1면-8면 주요내용 소개

1면 이사장님 말씀

6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면 환영사

7면-8면 학교소식

3면-5면 1학년 담임 및 신입생 소개

입학을 축하합니다



환영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교장 박종관



새내기 신입생 여러분은 방금 환일고등학교 문을 들어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새로운 출발은 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 목표는 무엇입니까?

신입생 여러분은 오늘부터 고등학생입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받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안에서 남들과 소통하고 나누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첫째, 독서에 투자합시다. (책읽기—글쓰기—말하기)

예부터 인재를 등용할 때도 신언서판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스크린 너머 세상을 보고, 진짜 삶을 꾸리고 싶으면 책을 읽으십시오. 책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주고 느끼고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생명체 가운데 책을 읽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짐승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면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조각 지식이나 모호한 생각을 정교하게 만들어 주는 데는 글쓰기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말하기는 이 책 읽기와 글쓰기가 바탕이 될 때 논리와 설득력이 갖추어집니다. 환일고등학교가 여러분의 책방이 되고 글방이 되며, 동시에 말방이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학문에 투자합시다. (변화의 물결을 타는 방법)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 각 분야에 AI가 빠르게 심어지고, 어떤 일을 하든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 아주 중요해지며, 세상사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배움의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셋째, 외국어 공부에 투자합시다. (글로벌 세계의 주인)

국경 없는 보더리스 시대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글로벌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영어는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언어'입니다. 매일매일 여러 외국어 학습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청춘이십니다. 청춘은 아름답습니다. 이곳 환일고등학교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공부를 하는 모습은 더욱더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가 꽃을 피우고, 꽃피운 자리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환일고등학교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람찬 기억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새 출발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아름답고 희망찬 미래로 인도해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환일의 미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감 이정철



사랑하는 환일고등학교 신입생 여러분! 2022년 새해 환일의 가족으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환일에서 보낼 앞으로의 3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3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째, 학교생활에 충실히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는 여러분의 입시 준비는 물론 즐거운 학창 시절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정규 수업 외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영재학급, 심화토론, 논술 등을 통해 여러분의 학업이 심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장제, 체육 한마당, 가을밤 열린 음악회, 힐링데이 등 친구들과 협력을 하여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행사를 치르며 여러분의 정서 함양은 물론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의 가치 역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신입생 여러분이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해 실력과 인성 모두 성장하는 인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둘째,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제가 여러분 나이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의 한 구절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환일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 보세요.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 그게 꿈이 아닐까 싶은데, 무엇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고 내일이 기다려진 적이 있나요? 저는 여러분이 각자 자신의 꿈을 위해 초롱초롱한 눈빛이 살아있는 고등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꿈을 향해 높이 비상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학교 선생님 모두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드리며

~!자기 학교 생활을 맛이 있어 봄시다.



간부 교사 및 부서별 업무 소개



행정실 이채우 실장

- 학교 회계 업무
- 인사담당
- 증명서 발급
- 급식 운영



교무부 최원호 부장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연간 학사 일정 계획 및 관리
- 4대 고사 총괄
- 대학수학능력시험 총괄
- 학적, 출결, 시상 업무
- 학교운영관리위원회 관리



창의인성부 구정희 부장

- 영재학급 운영
- 학력 평가 관리 및 성적0 분석
- 독서, 논술, 토론 교육
- 도서관 운영 및 관리
- 학교 신문 발간- 각종 경시대회, 인성 교육, 통일 교육



생활체육안전부 한재혁 부장

- 기본생활습관 지도 및 적응 훈련
- 학교폭력 예방 교육
- 학교자치활동 활성화
-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졸업여행, 리더십캠프
- 봉사활동, 체험활동
- 학교스포츠클럽



진학부 오혜경 부장

- 대입진학 업무
- 학생, 학부모 대상 입시설명회
- 멘토링
- 심층 면접 및 모의 적성고사



방과후학교부 김민선 부장

- 방과후학교 구성 및 자율학습 운영
- 개인별 자율학습 통계
- 자율학습실 관리



미래교육부 김효숙 부장

- 신앙지도 업무 총괄
- 성가합창제, 열린음악회
- 방송업무 총괄
- 장학생 추천
- 상담



AI 융합부 명홍식 부장

- AI 융합교육 중심학교 운영
-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관리, 지원
- 학교 홈페이지 관리, 정보공시
- 공유캠퍼스



학사운영부 탁우빈 부장

- 학교신문 발간, 도서관 운영
- 학교 홈페이지 지원
- 봉사활동, 체험활동, 인성교육
- 각종 독서 관련 행사



1학년부 박현주 부장

- 신입생 등록 업무
- 1학년 세종반, 심화반 관리
- 1학년 국영수 TF팀 관리
- 소규모 테마여행, 문화탐방
- 학급담임회의 진행



2학년부 이승원 부장

- 대학 전공 탐색 안내
- 2학년 세종반, 심화반 관리
- 2학년 국영수 TF팀 관리
- 소규모 테마여행, 문화탐방
- 학급담임회의 진행



3학년부 김광은 부장

- 입시 및 진학 지도
- 3학년 세종반, 심화반 관리
- 3학년 국영수 TF팀 관리
- 졸업여행, 문화탐방
- 학급담임회의 진행



1학년 담임 및 신입생 소개

환일인이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학년 1반 담임 박현주 선생님

신입생 여러분 환일고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얼마 전 중학교에 입학 했는데 벌써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코로나와 더불어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가 출업식을 맞이하지는 않았나요? 얼마만큼 많은 내적 성장을 했을까요? 고등학교 입학한 후 3년 후 여러분은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매우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학교 생활도 학업도 모든 것이 두 배 이상으로 많은 노력과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하루를 분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만큼 본인이 꾸는 꿈과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겁니다. 환일정신으로 환일맨이 되어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돌진하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날자, 환일

1학년 2반 담임 김인실 선생님

2022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아름다운 교정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선배님들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환일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환일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중학교에서와 다르게 고등학교에서는 자신의 진로에 더욱 한발 다가가서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정해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1년 동안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 을 시험해보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분야를 부지런히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은 무엇이나 좋다 제 1인자가 되자'라는 설립자님의 교육이념처럼 여러분의 꿈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루를 소중히 최선을 다한다면 3년 후에 각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옆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환일에서 이룹시다.

1학년 3반 담임 양성임 선생님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 볼만하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잊지 말자.
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에겐 선물로 주어진다.
아리스토 텔레스의 명언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환일고 입학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로 환일을 지원 하였을까요?
부모님의 권유든 친구들을 따라서 왔든 여러분은 현재 봉학마루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며 보람 있게 보낼 수도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후회하며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가에 달렸습니다.
학교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큰 나무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환일에서 3년이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원동력을 되리라 믿습니다.
환일동산에서 여러분의 꿈을 맘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응원 합니다.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1학년 1반

강민서 김용환 김재윤 김준협 김현하 박진호 백재하
백준규 소현우 예상근 이민혁 이오성 이은우 이정우
이주홍 이진율 하예준 한상원

1학년 2반

구도현 김명진 김태우 마재민 민진수 박서진 박준서
박준혁 오원진 윤상민 이민우 이지현 이현우 임승주
임진수 최은우 황지호 KAVCHAKROMAN

1학년 3반

고은수 김현호 김희태 박민재 박재우 박현준 배가온
백예찬 신윤호 심태수 원제현 유정훈 이재현 이지완
전석진 흥동국 황태훈





1학년 담임 및 신입생 소개

여러분!!! 어서 오세요.

1학년 4반 담임 김경신 선생님



우선 환일이라는 매개체로 사제시간이라는 귀한 관계를 맺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감도 생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두려움과 불안감..... 그렇지만 하루 이를 지나고 친구들도 사귀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익숙함과 편안함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 빨리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여 익숙하고 편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즐겼으면 합니다. 물론 중학교 보다 훨씬 어려워진 학습 내용, 성적 스트레스, 수면 시간의 절대 부족 등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요소는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겁먹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세요. 그럼 '어머..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어?'라는 생각이 들며 자기 자신이 매우 대견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좋아하고 나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행복은 대단한 것을 이루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과정 과정에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버리고 편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순간 순간에서 느껴지는 좋은 감정,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선생님 역시 여러분들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환일에서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냅시다.



시작이 반이다.

1학년 5반 담임 김재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환일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슴 떨리는 일이며, 이러한 시작은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하나의 지점입니다.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일에 대해 기대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안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음속에 충만한 기대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마음을 흔드는 불안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3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잘해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힘차게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 환일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1학년 6반 담임 허성희 선생님



새로운 시작이 주는 설렘과 기대를 우리 환일에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우리 환일에서 많은 도전을 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의 잠재성을 긍정적으로 실현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을 언제나 높게..

노력을 항상 치열하게..

결과는 끊없이 흥족하게..

서로의 다른을 인정하며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함께 성장해 갑시다.



직업은 무엇이나 좋다.

1인자가 되자.

1학년 4반

곽도윤 김준희 김찬영 류승우 박인우 백현창 서지후
신윤진 신한서 오윤우 유정우 전원준 정상준 정순후
조성민 최유현 한은수

1학년 5반

김병수 김승환 김영제 나은총 노동률 박범천 성재원
오대환 오재문 위진영 유경목 이민준 이아언 이재희
이진형 이현석 최현성

1학년 6반

강윤서 국권희 김선우 김태준 남준서 박상준 박정호
빅지혁 서준빈 신재서 양정민 양홍준 윤기환 윤태균
정건 최민서 최민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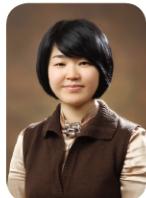




1학년 담임 및 신입생 소개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하며 응원합니다!

1학년 7반 담임 박현아 선생님



환 : 환영합니다!

일 : 일등이 되기 위해 채굴하기보다

고 : 고통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담임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인 환일의 울타리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고등학교는 여러분이 설계해 갈 인생길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1학년은 그 첫 발을 내딛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빠른 속도를 지향하기보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다지면서 걸을 수 있도록 제가 함께 걷겠습니다. 앞서서 이끌기보다 옆에서 도우며 걷겠습니다. 통보하기보다 소통하며 걷겠습니다



환영합니다.

1학년 8반 담임 송영한 선생님



환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아직은 고등학교 입학이 낯설시고 하고 어색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웬지 모를 기대감과 설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고등학생이 된 만큼 여러분 각자의 다짐과 포부들이 있겠지요. 지금 가진 첫 마음을 잘 간직하길 바랍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첫 마음가짐을 기억하면서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훗날 돌아봤을 때 미소가 지어지는 행복하고 멋진 1학년을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서로 최선을 다해 봅시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합니다.



비전을 위해 오늘! 여기서!

1학년 9반 담임 김철우 선생님



우리 환일고등학교에 입학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해 성실히 노력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렵고 힘겨운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의 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우리 신입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환일고등학교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찾고 자신의 꿈을 위해

오늘! 여기서!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여러분의 3년을 응원하겠습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1학년 7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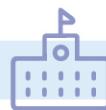
문준혁 박도현 박민준 박정용 박주영 박지훈 배성열
배성재 서정빈 손인석 이승환 이시온 임호성 장호
정민재 조한 흥주신

1학년 8반

김도윤 김동진 김민준 김이삭 김준호 김현석 연제용
이우진 이정우 이진서 이혁규 정우제 정재훈 정제원
허준호 흥예택

1학년 9반

곽동규 김문성 김지용 박성재 박현우 송현 유마루
유준호 이성민 이예훈 이재현 이주찬 임승우 장석현
허준우 흥도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2학년도 환일고 신입생 155명은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첫날은 학교의 역사를 비롯하여 설립자님과 이사장님의 교육 철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학사일정과 학력 신장 방안 및 영재학급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운동장에서 반별 및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촬영을 마친 반은 학교 투어를 하며 특별실 등의 위치를 익혔다. 첫째날 마지막 일정인 옥타그노시스 진로적성 검사를 실시한 후 하교했다. 둘째 날은 교육과정 및 대입전략, AI 융합 교육, 국영수 학습 전략, 방과후학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지막 날은 스포츠 한마당(축구, 농구, 축구)을 하며 아직은 서먹서먹한 친구들과 친분을 쌓는 기회를 마련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는 2박 3일 간 강원도에서 스키를 타며 선생님, 친구들과 친분을 쌓는 것이 우리 학교의 전통이었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스키캠프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추운 날씨도 무색하게 할 만큼 신입생들의 열정이 대단했고 특히 학생들이 안전거리 유지 등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며 모든 행사에 참여해 3일 동안 진행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잘 마무리 되었다.

2학년 김민수 기자



선-후배 인사

환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생회장 송원준



환일고등학교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9대 학생회장 송원준입니다.

우선 신입생 여러분들! 환일고등학교에서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의 삶 대의 마지막 시절과 추억들을 쌓아 나갈 곳입니다. 물론 막 입학한 후에 중학교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그리고 여러분으로 학교에 적응해 나가기가 쉽지만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장담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매 순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환일고등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최고의 고등학교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은 추억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미친 듯이 노십시오! 그리고 미친 듯이 공부하십시오! 2025년 2월 여러분들의 졸업식 날 그동안 만들어간 추억들을 바탕으로 환일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끝을 내면서, 시작을 하면서

신입생 박현준



안녕하십니까? 1학년 학생들을 대표하여 글을 적게 된 박현준입니다. 우선 신입생을 대표하여 글을 적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이런 기회를 주신 선생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 고등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마주하니, 처음에 중학교에 입학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어색한 친구들, 새로운 교실.. 그런 시절도 어느새 지나가서 함께 울고, 웃던 정든 친구들과 헤어짐을 맞이하였고, 은혜를 입었던 선생님들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새로운 고등학교 생활을 환일고등학교에서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고등학교 생활은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더 큰 책임도 젊어지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고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중학생이 아닌 고등학생으로,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저희를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키워주신 부모님과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앞으로 저희를 키워주실 선생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환일고 학생들의 앞길에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3년의 시작

신입생 박범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2학년도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1학년 박범천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3월만 되면 벌써 고등학생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재미나고 개구쳤던 중학교 친구들과의 학교생활이 벌써 그립습니다. 계속 중학생이고 싶은 바람은 제 마음속 한 편에 숨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놀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 아직까지 저에게 고등학교 생활이 두렵기도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고, 저의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3년의 고등학교 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스포츠 축전, 힐링데이, 합창경연 등 학교 행사를 통해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하며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들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더욱 더 기대가 됩니다. 물론, 친구들과의 다툼, 성적에 대한 좌절처럼 가는 길이 순탄하진 않겠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의미 있는 3년의 고등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직업은 무엇이나 좋다, 제1인자가 되자’,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이다.’라는 학교 교훈을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자랑스러운 환일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일 프리스쿨(PreSchool)



환일고에 입학하는 환일중 27명은 2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경천관에서 진행된 2022 환일 프리스쿨에 참가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전 학교에서 마련한 간식을 먹으며 환일중-환일고 선배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기회를 가졌다. 간단한 다과를 마친 후 달라진 대입제도와 1학년에 꼭 해야 할 학습 내용에 관하여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이어진 선배님들과의 조별 활동에서 학교 생활과 학습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들으며 친목도 도모했다. 특히 선배님들이 자신이 직접 겪은 고등학교 생활을 들려주어 막연하게 느낀 학교생활이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입학 전 마음가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신입생 박현준 기자



동아리 안내

본교는 결실의 계절 11월에 힐링데이라는 축제를 한다. 그런데 그 축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동아리 활동이다. 1년간 동아리에서 활동한 결과물을 모아 전시와 공연에서 선보이는 것이다. 본교는 창체 동아리 47개를 운영(2021년 기준)하며 학생들의 진로 탐구뿐만 아닌 재능 함양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신입생 여러분도 자신의 흥미에 맞는 동아리를 선택하여 추억에 남는 학교생활을 하기 바란다.

학년	학년	동아리 이름	주요 동아리 소개
1,2 학년	3 학년	영어원작감상반	은행나무 신문 편집반 : 우리학교의 교목인 은행나무의 이름을 따서 만든 신문편집반으로 환일고의 얼굴인 은행나무 신문을 만드는 동아리이다. 1년에 총 5회(입학호, 여름방학호, 개교기념호, 겨울방학호, 졸업호)의 신문을 제작하며 학교의 주요 행사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다. 글쓰기, 사진 찍기 등에 취미가 있는 학생 또는 장래 희망이 언론 계통인 학생이 지원하면 좋다.
		마을과 함께하는 사회문화탐구반	경배와 친양단 : 기독교 정신을 전학이념으로 하는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기독교 관련 동아리로, 매주 월요일 3교시에 실시하는 예배에서 친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친양과 악기 연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기다린다.
		영자신문읽기반	미술부 : 미대나 디자인 관련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지원하면 좋다. 우리 학교 미술반 출신 학생들은 입시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입시 노하우 또한 잘 갖추고 있다. 합창제, 힐링 데이를 더욱 빛나게 하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 부원들의 자긍심도 매우 높다.
		과학동영상감상반	합창부 : 환일고 합창부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동아리로 해마다 고교합창제에서 수상을 할 정도로 그 실력이 뛰어나다. 노래 실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노래를 매개로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꼭 지원하기 바란다.
		꽃과식물가꾸기반	방송부 : 일명 HBS. 방송부는 고등학생들의 로망 동아리이기도 하다. 본교 방송부는 월요일 예배, 학급 경전회, 명사 특강, 부활절 촛불 예배, 힐링데이 등 학교의 모든 행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문이 열려 있으며 특히 방송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진로 설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헬스반	AI반
		축구반	
		족구반	
		퍼즐반	
		수학영화탐구반	
		세계와 역사반	
		3D프린트반	
		AI반	
		로봇반	
	1,2,3 학년 (상설)	도시탐색반	
		믹스보이스보컬연구반	
		과학잡지탐독반	
		방송댄스반	
		영어소설읽기반	
		Hi - K I M C	
		독서감상반	
		미드속생활영어반	
		역사영화토론반	
		역사영화토론반	

창체 동아리 조직표(2021년 예시)



방과후학교 및 특기 적성 안내

본교는 7교시 수업 종료 후 50분간 방과후학교 및 특기 적성을 운영하고 있다. 학기 중 1, 2차, 여름방학, 겨울방학(1차, 2차) 이렇게 1년 간 총 7회 분기로 나누어 월수금, 화목반으로 진행된다. 강좌 구성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과학탐구, 사회탐구와 같은 수능을 준비하는 교과반과 축구, 농구, 족구, 헬스, 미술, 음악과 같은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는 특기 적성반이 있다. 특히 작년 2학기부터는 한 강좌당 12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훨씬 더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게 되었다. 작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제 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중후군)가 유행하였으나 우려와 달리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 환일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신입생 여러분도 자신의 흥미와 적성 등을 고려하여 3월 초 담임 선생님께 신청하기 바란다.

2학년 강연욱 기자



환일 갤러리(사진으로 보는 1년)





제 69회 졸업식



2022년 2월 4일 본교 대강당에서 제 69회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안전 수칙에 유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며 진행된 졸업식이다. 그 일환으로 강당 참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였으며, 강당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님을 위해 시청각실, 영어1, 2실을 개방했다. 모든 행사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되었다.

이정철 교감님의 사회로 진행된 본 행사에 서양호 구청장(중구), 유동균 구정창(마포구), 박순규 서울시 의원(중구)이 참석하여 자리가 더욱 빛났다. 내빈 소개 후 학교 연혁 및 설립자, 이사장님의 소개가 이어졌으며 그 후 재학생들이 합창 및 축하 연주를 하여 행사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또한 3년 간 환일 교정에서 보낸 시간을 담은 입학 후 활동 동영상이 나왔을 때 졸업생들은 환호를 하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아름다운 학창 시절을 마음 한켠의 추억으로 남겼다. 김은미 이사장님은 졸업생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그들의 앞날에 축복을 내리셨다. 자랑스러운 환일고 졸업생 238명은 이사장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정든 교정을 떠났다.

2학년 정종민 기자



위스콘신 대학교 음악대학 유학 설명회 개최



본교는 2019년 미국의 명문 대학인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와 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그 대학의 교수(음악대학)로 재직 중이신 박종원 교수님께서 2022년 1월 18일(화) 본교를 방문하셔서 음악 대학을 목표로 하는 재학생들에게 유학 정보를 알려주셨다. 합창부와 음악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모여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음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영어 실력이 좋지 않아도 입학 후 학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학 실력을 쌓을 수 있으며 각종 장학금이 있어 학생 자신만 열심히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 없이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유익한 정보도 주셨다.

2학년 채현식 기자



영재학급 수료식



2022년 2월 3일 목요일 경천관 2층에서 영재학급 수료식이 개최되었다. 사회를 맡으신 구정희 선생님의 인사와 수학 영재 담당이신 박경하 선생님의 기도로 수료식이 시작되었다. 이후 박종관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영재학급 학생들에게 훈찬 격려와 응원이 되어 다시 한번 우리의 꿈을 일깨워주셨다. 과학 영재 옥민수, 수학 영재 윤기훈, 융합 영재 박예준 학생이 각자 자신이 발표했던 산출물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뒤이어 교장 선생님의 수료증 수여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과학 영재 이은형 선생님, 수학 영재 박경하 선생님, 융합 영재 김희경 선생님의 총평으로 영재학급 수료식을 마무리하였다.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영재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모두 수고하였고 수업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학년 박호준 기자



대입합격 현황

(2022.02.18. 현재)

2022 대입	의학계	스카이(23명)			서울 상위 9개대학(50명)									사관 학교	과 기 원	서울 수도권 대학	기타 4년제 대학
		서울	연세	고려	성균관	한양	중앙	경희	외국어	시립	건국	동국	총의				
인원	13	2	11	10	3	5	10	7	6	1	2	12	4	0	0	156	285



1학기 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2일(수) 입학식 21일(월) 기드온 성경 예배 24일(목) 전국연합 학력평가 29일(화) 학교방문의 날	1일(금) 영재학급 입학식 13일(수) 고1,2 진단평가 / 고3 학력평가 18일(월) 부활절 축불예배 26일(화) 중간고사(고2, 3) / 27일(수) 중간고사(고1)	2일(월) 교생실습 6일(금) 스포츠 축전(고2) 13일(금) 스승의 날 행사 27일(금) 학창경연	3일(금) 스포츠 축전(고1) 9일(목) 고1,2 진단평가 / 고3 대수능 모의평가 10일(금) 스포츠 축전(고3) / 등행(고1, 2) 28일(월) 기말고사(고2, 3) 29일(화) 중간고사(고1)	5일(화) 소규모 테마여행(고1, 2) 6일(수) 고3 학력평가 8일(금) 성경퀴즈 골든벨 15일(금) 방학식, 리더십 캠프